

온라인 커뮤니티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내용분석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9년 7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대상 |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트래픽 순위 상위 8곳의 커뮤니티 당 게시글(200건) 및 댓글
- 모니터링 방식 | 기간 내의 인기 게시판 전체 게시글과 6월 이후 게시물 중 성차별관련 게시물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 인원 | 10명

01 들어가며

오늘날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온라인에서 표출된 의견들은 사람들의 현실 의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에 성차별적인 온라인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차별·혐오표현의 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8곳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1) 모니터링 대상 커뮤니티 선정

트래픽 순위를 보여주는 사이트 시밀러웹(www.similarweb.com)을 활용해 접속 수 기준 상위 10개 중 전체공개 되어 게시물과 댓글 열람에 제한이 없는 커뮤니티 8곳을 선정했다.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 건)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1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커뮤니티 포털	gall.dcinside.com
2	루리웹	게임 커뮤니티	bbs.ruliweb.com
3	에펨코리아-펨코	유머·축구 커뮤니티	www.fmkorea.com
4	게임, 그 이상의 유토피아 - 인벤	게임 미디어 플랫폼	www.inven.co.kr
5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6	뽐뿌	쇼핑정보 커뮤니티	www.ppomppu.co.kr
7	클리앙	전자기기 구매정보 커뮤니티	www.clien.net
8	웃긴대학	유머 커뮤니티	web.humoruniv.com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울YWCA에서 기존에 모니터링 해왔던 대중매체와는 성차별 발화의 특징이 다르다.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수아 강의교수의 자문을 받아 새로 지표를 개발하였다. 총 1,600건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관련 댓글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모니터링했다. 첫 번째는 성차별 지표를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내용을 분석했고, 두 번째는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을 언어와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1)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내용 분석

아래의 여섯 가지 지표를 통해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1,600건중 526건(32.8%)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 게시물에 여러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표적인 내용 한 가지로만 분류하였다. 526건 중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모욕이 196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비하가 176건(33.4%)으로 많았다.¹

[표2]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사례

	내용분류	사례 수
1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모욕	196 (37.3%)
2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비하	176(33.4%)
3	성별 고정 관념을 조장하는 비하·모욕	75(14.2%)
4	외모지상주의에 근거한 비하·모욕	34(6.5%)
5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11(2.1%)
6	기타	34(6.5%)
	합계	526(100%)

1 한편 해당 시기 분석된 성차별 게시물의 커뮤니티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지만, 시계열적 분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볼 것을 권한다.

	커뮤니티	사례 수
1	에펨코리아	117
2	디시인사이드	116
3	일간베스트	100
4	투리웹	80
5	인벤	42
6	클리앙	26
7	웃긴대학	26
8	뽕뽕	19
	합계	526

(1)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모욕

모니터링 결과 상위 트래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성차별 사례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모욕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여성은 ‘이쁘면 따고 시들면 버리는’, ‘남편 잠 잘 때 젖탱이나 내밀고 위에서 허리 치거나 배우면 되는’ 존재로 묘사되거나, ‘ㅂㅈ(보지)’와 같이 성기 또는 ‘참젖’, ‘의젖’과 같이 가슴성형 유무로 구분해 특정 신체부위로 지칭되었다.

[표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지칭하는 용어들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일간베스트	자작시) 여자는 꽃처럼 다뤄라	예쁜 꽃을 꺾어서 내 화병에 두면 시들고 썩고 예쁜 꽃을 꺾어 잘 말리면 평생 두고 볼 수 있고그 꽃이 꺾이는게 두려워 그냥 두면 다른 놈이 위에 두 짓을 한다 꺾고 봐 내 맘에 들면
	가슴큰여자가 착함	참젖 여자는 조금 뭐랄까 항상 즐거운 표정을 짓는거 같아 어딜가든 남자들이 쳐다보니까

6월 21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즘 여대생들 패션’이라는 제목의 인기 게시글에는 본인이 대학가 근처에서 보았던 여대생들 패션을 소개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짧은 바지를 착용한 사진을 가져왔다. 이 게시물에는 ‘한명 붙잡고 끌고 가지’, ‘몸매 좋은 년들 레깅스 개꿀’, ‘00(지역명) 여자들 잘썰’, ‘비치는 레깅스에 노팬티 레알 꿀림’, ‘번식기니까... 보지에 좇박아달라고 애쓰는 거지...’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렸다.

위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여성 사진 혹은 영상을 가져와, 본래 맥락과 전혀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를 부각하며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게시물에는 19, 극후방, ㅇㅎ(극후방·약후방주이란 말로, 야한 내용이 있으니 게시물 클릭 시 뒤를 조심하라는 뜻)라는 은어가 게시물 앞에 붙여지고, 은어가 붙여진 게시물일수록 조회 수가 높았다. 문제는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매우 일상적인 문화라는 점이다. 위의 사례들 이외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이 등장한 영상 또는 사진을 가져와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속 지배적인 문화였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일상적인 문화가 될 때, 성적 대상화는 쉽게 특정 개인을 향한 성적 모욕으로 이어진다. 2019년 7월 5일 한 커뮤니티에 ‘속옷파는 쇼호스트’라는 제목으로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쇼호스트의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여성 쇼호스트가 여성 고객들에 실제 속옷을 착용했을 때의 착용감, 편안함, 비치는 정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들이 올라와있었다. 이 장면을 두고 댓글에서는 여성 쇼호스트의 사진을 두고 ‘발기차네 정말’, ‘누가 기획했는

[표4] 성적 모욕 사례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에펨코리아	ㅇㅎ?속옷파는 쇼호스트	처음 호스트 골반찌네
		폭풍섹스 하고싶다
		(근데 저렇게 쇼호스트가 입었던 속옷은 어케처리함? 쇼호스트 거임? 라는 댓글에 대댓글로 달림) 나같으면 벗으라고 내가 가져갈듯 ㅋㅋ
	ㅇㅎ)조현 아리 코스프레 준비과정	젖이 크고 이뽕..... (저런 꼬리보면 엉구멍에 꽂는 꼬리생각난다 라는 댓글에 대댓글로) 빼서 쪽 빨면 만원, 만원 주고 빨라해도 줄을 설듯

지 모르겠지만 너무 꼴잘알인데...,'개꿀린다씨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날 올라온 한 여성의 코스프레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 게시물 또한 마찬가지였다.

여성에 대한 모욕과 대상화가 심해질 때, 여성을 완전히 비인격화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여자꼬시는법 특강: 나한테 기생하게 하면 된다”는 제목의 “어찌됐던간에 확실한건 여자의 정신을 지배하는 순간 침대에서 그여자는 틀림없이 모든걸 다해주는 육노예 좇집 육변기 씨받이 임신기계 섹스노리개가된다”라는 게시글은 여성을 전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다뤄지지 못할 때 여성에 대한 성적 위협이나 공격성은 분명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속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

[표5] 성적 위협이나 공격성을 표현한 내용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일간베스트	실제 여자 잡아다가 강간하는 야동 없냐;;	진짜 여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지르고 저항하다가 쳐맞고 여러명한테 돌림빵 당하는 거 보고 싶다
	이쁜여자 강간하고싶다	이쁜여자 강간하고싶다
디시인사이드	아 시바 오늘 본 남미녀 도촬할걸	어차피 사진 찍히는거 익숙한 남미녀라 사진찍어도 김치녀처럼 지랄거리지 않을텐데
	스시녀 강간하기에 좋은 도시??	스시녀 강간하기에 좋은 도시?? 강간튀 하기에 쉬운 도시 어딜까

또한 외국 여성과 한국 여성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많았다. 이러한 비교는 외국 및 한국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로 이어졌다. 특히 태국·일본 여성들을 한국 여성과 비교한 사례들은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모니터링 한 8개의 커뮤니티에 전반적으로 등장했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다르게 성적 매력이 더 높고, 한국 여성은 아니라는 식의 비하가 주요 내용이었다. 성적 대상화는 일반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두고 이뤄졌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희롱으로 이어졌다. 아래 예시에서 ‘푸잉’은 태국 여성을 지칭한다. (표6 참조)

[표6] 성적 대상화에 근거하여 외국 여성과 한국 여성을 비교·비하한 사례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웃긴대학	15) 한국 여자의 브라를 착용한 서양녀.jpg	한국여자 가슴이 작다고 무시하지마!!!
디시인사이드	푸잉 검수 항목	1. 보징어 2. 의젓 3. 생리 4. 입냄새 5. 제왕절개 자국 또 뭐있냐? ㅅㅂ 이글쓰면서도 ㅂㅈㅇ랑 제왕절개 자국 생각하니까 꼬무룩 해지네...
	학식들이 방콕 평균푸잉 와꾸다	(태국 여성 사진 아래에 달린 내용) 얼렁 얼렁 방타이해라. 루트 스독가서 죽치고 있음 온다 얼렁 얼렁 발권해라 ~~~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일간베스트	스시녀 옷 벗기고 섹스해서 보지자궁에 사랑의 정액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1.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눈 크고 귀엽고 예쁘게 생기고 얼굴이 깔끔하다. 2.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더치페이 잘해주고 남자친구에게 헌신적이고 사랑스런 애교 자주 떨어주고 가정적인 여자이다. 3.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몸매가 날씬하고 가슴이 크다. 4.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핑보 핑두이고 보지와 가슴에서 향기가 난다. 5.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목소리가 감쪽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이 난다. 6.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다.

(2)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비하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비하가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었다.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과 비하는 ‘페미’ 자체에 대한 모욕, 성적 모욕, 비하로 나타났다.

[표7] ‘페미’를 정의내린 게시물 혹은 댓글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디시인사이드	종족번식에 실패한 열등한 유전자 집단	페미 = 종족번식에 실패한 열등한 유전자집단
	페미니스트 조기교육	전라도 = 페미 = 조선족 이지 애미뒤진바퀴벌레야 ㅋㅋ
에펨코리아	ㅇㅎ)게임 캐릭터도 시샘하는 페미들.jpg	싫다면서 한남들이 좋아하는건 다 규제시켜서 자신들에게 눈을 돌리게하려는 병신년들..
루리웹	페미가 욕먹는 이유	정신질환자의 일관성이란 정신질환 뿐이지
웃긴대학	트페미년들 이제 조여정 출연료로 ㅈ르이네 ㅋㅋ	애초에 꼴페미들 주장에는 항상 별 근거가없음 그냥 '여'배우 출연료 낮은거 보고 화부터 낸 다음 아무 이유나 갖다붙이지 ㅋㅋ 상식적으로 라니 상식이 안통하는 집단인디
	페미를 하면 못생겼다는건 편견임	페미가 외모를 타진하지만 겉모습이 예쁘더라도 이기적이고 도덕성이 결여되었으면 페미가 되기쉬움
클리앙	페미들의 진정한 적은 '남자'가 아닙니다.jpg	참 불쌍한 애들이예요...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게 날씬하고 예쁜여자들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남탓....이런걸로 보면 일베충이나 메갈이나 이성혐오라는 공통분모가 있네요 이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혐오한다니...
	근데 페미애들 일정 이해는 가는게	비율적으로 못생김+과체중+매력없음 3단 콤보로 남자눈길 한번 못받고 학창 시절 부터 사회나가서도 무언의 차별을 받아오니 사실은 본인 잘못이 큰걸 알지만 어떻게 할수 없으니 분노의 대상을 찾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페미’로 불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위의 표현에 의하면 페미는 종족 번식에 실패한 유전자 집단이자, 정신질환자이며, 얼굴이 못생긴, 도덕성이 결여된 여성, ‘자기가 누리지 못하게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여성들’이다. 즉 ‘페미’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거나 이론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들(남성)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

장이나 외모를 가진 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페미’에 대한 모욕과 비하는 그들을 자신과 대화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배제와 낙인의 문제다. 여기서 배제와 낙인의 주체는 남성이다. 여성들이 ‘페미’가 되는 이유는 ‘남자 눈길 한번 못 받았기 때문’이며, 남성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만이 ‘페미’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페미’는 ‘정신질환자’이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 집단’이다.

이는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갈’이 메갈리아 사이트 유저를 지칭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메갈’은 사실상 어떤 존재를 의미하지 않은 채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할 수 없는 자 혹은 대화 자격이 없는 자로서 비자격의 명칭이나 멸칭이었다(김수아, 2017). 김치녀가 사용된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김치녀 담론이 성별과 무관한 이유들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켰다는 점, 다른 나라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로 이어졌다는 지점은 이번 ‘페미’의 담론 구성과 동일하다. 김치녀라는 말 또한 모욕과 비하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결국 오늘날 ‘페미’는 김치녀의 대체어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 여성 비하 표현인 것이다.

어떤 메시지의 타당성을 공격할 때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을 비정상화하면 그 사람의 말이 모두 의미 없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말이 된다. ‘페미’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성평등 주장을 왜곡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성평등 주장의 내용이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주장하는 이가 이들이 구성한 ‘페미’이므로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의 사례들은 ‘페미’가 비정상이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보여준다.

[표8] ‘페미’에 대한 모욕과 비하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루리웹	[유머] 성 상품화 특징	그 정신병자들 말을 조금이라도 귀기울이면 안되는 이유
에편코리아	과거 여성들이 성차별을 겪었다고 현 페미를 옹호하는건 억지같음	모순 좀 그만 견디고 뒤져라 쌍년들아!!!!
웃긴대학	메가섹터디 1타 강사.jpg	페미니스트들을 철저히 미친년으로 취급하고 씨를 말려 버려야 함

(3) 성별 고정 관념을 조장하는 비하·모욕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비하의 사례로 ‘여자 정치인들은 왜이리 말투가 공격적이죠?’, ‘여자작가가 쓴 소설을 읽을때면 (도끼병) 공주병스러운 부분을 느끼곤 했는데 이 소설도 그랬네요’와 같이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불어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해 여성을 성녀·창녀로 구분하는 남성 중심적 성 규범을 강화하는 내용 또한 발견되었다.

[표9] 남성 중심적 성 규범 강화하는 내용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디시인사이드	혼자 유럽 여행 가는 여자 혹시 걸레냐??	혼자 유럽 여행 가는 여자 혹시 걸레냐??
뽀뿌	정말 씻을수 없는 상처 사귀는 여자가 전남친과 섹파하고 다녔던 썬 2	그 개 쌍년은 정말이지 개걸레였고 더럽더군요. 걸으로는 아무렇지않은척 착한척 다하더니 먹히고 다녔던 여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속 여성혐오 사례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김치녀와 된장녀 프레임 또한 여전히 존재했다. 한국 여성에 대해 돈을 밝히고, 남성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며 남성의 돈을 통해 신분상승을 하려 한다는 ‘김치녀’와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된장녀’ 그리고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김여사’로 그려내는 사례가 약 20여 건 발견되었다.

[표10]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등의 여성혐오 프레임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뽀뿌	방금 30대 미친 ㄴ이 쓰레기 버리고감 ㄷㄷㄷJPG	방금 30대 미친 ㄴ이 쓰레기 버리고감, 검정색 프라다 크로스백한개 프라다 핸드인지 여튼 두개 매고 가는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던지고 가네요 스타벅스 휴지네요
	구형 안드로이드폰 쓰는 여자들이 매력적입니다.	남들 시선 신경쓰는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최신 아이폰을 쓰기 마련인데요 갤럭시s7 노트5,8 이런 구형 휴대폰 쓰는 분들 보면 적어도 명품 좋아하고 사치부리지는 않을 것같아서요.
디시인사이드	나이 40에 혼자 파타야 사는 김치녀	나이 40에 혼자 파타야 사는 김치녀는 보통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사냐??
	조공 같은거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	받는게 익숙한 김치녀가 되지 않았으면 해...
일간베스트	고유정 같은 성격은 한국 여자의 보편적인 면이 있음	80년대생 그 성별이란 말이 괜히 있겠냐. 아이돌 빠순이 > 된장녀 > 맘충...약 10년 단위로 별명 달고 온갖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인벤	제가 성차별을하는사람은 아닌데요..	하 도대체 여성운전자들 왜케 백미러 안보시고 스텔스하고다니는지 미치겠어요 진짜 예전에 누가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아 운전 ㅈ같이하네 해서 보면 남자고 아 운전 ㅂS같이하네 하고 보면 여자라고...이건 성차별의문제가아니라 진짜 비율로봤을때임

특정 역할에 관계없이 그냥 ‘여성’이기에 열등한 존재라는 게시물 또한 발견되었다. 여러 통계자료를 인용해 2030 한국 여성들이 남성보다 유전자적으로 열등하다는 게시물, 뇌가 보지에 달려있어서 사고방식이 엉망진창이라는 댓글 등은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4) 외모지상주의에 근거한 비하·모욕

외모지상주의는 34건 발견되었는데 여성들에게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며 외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이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이뤄졌다. 누스바움(Nussbaum, 2012)은 미국의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에서 남성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여 수치심을 안기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비만과 성형이라는 특성을 여성에게만 특정화하여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외모 비하 표현들은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한 뒤 멸시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2 김수아,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표현, 한국 여성연구소, 2015년, p293에서 재인용 및 발췌

[표11] 여성에게 획일적인 미를 강조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디시인사이드	페미니스트 조기교육	(남자 신체적 특징만 그려놓고) 여자 ㅋㅋㅋ여자가 저렇게 어깨 넓고 허리 통짜에 골반없으면 그게 여자냐? 개새끼만도 못한 단백질덩어리지
에편 코리아	동양 여자가 레깅스를 입기 힘든 이유	상년들이 다리 예쁜 애들은 잘만입고댕기더라 니들이 족발인거지
일간베스트	허경영 팩트 ㅋㅋㅋ.jpg	다시말해 얼굴크구 못생긴 여자는 전생에 짐승이었다함 ㅋㅋㅋ
디시인사이드	여자는 마르면 거이 예뻐보이지않냐	좀 어리여리한 느낌나면 이목구비 ㅍㅍㅍ여도이뻐보이던데 이목구비 예뻐도 통통하면 안이뻐보임
	여자친구가 아이유병 걸려서 자꾸 화장 안 하고	ㄹㅇ 쌤얼 볼때마다 개 빠치고 좇 같은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속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외모 비난, 비하이다. 특히 미디어에서 젠더 이슈 관련 발언을 하는 일반인 여성들의 인터뷰 장면을 캡처해 게시글과 댓글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발견되었다.

[표12] 미디어 속 성평등 발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외모 조롱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에편코리아	폐북 페미 탈브라 반응	앞으로 저 사람 얼굴 안가리고 올리면 비추준다. 국자이크처럼 얼굴 좀 가려라 시발
	여성을 위한 섹스를 한남 냄저가 강의하는 이유	근데 저걸 여자라고 어케 알아보냐 솔직 ㅋㅋㅋㅋㅋㅋㅋㅋ
	귀신같은 미러링에 당황한 페미년	자립을 떠나서..재들은 살쥘서 기립도 힘들다
디시인사이드	페미들 탈코르셋한다고 밖에서 가슴다까고 사진찍은거개웃기네	시발진짜 생긴거남자에 ㅈㅈ만크노 ㅋㅋㅋㅋ

2)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표현 유형 분석

표현 유형은 크게 언어와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한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이미지와 언어의 상관관계가 없는 게시물이 존재하며 언어와 이미지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다르게 언어는 다양한 표현 유형을 보이기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했다.

홍성수는 그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에서³ 혐오표현의 유형을 차별적 괴롭힘, 편견 조장, 모욕, 증오 선동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성차별 발화가 ‘여성’이라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판

3 홍성수, 말의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년

단 하에, 모니터링에 적합하지 않은 ‘차별적 괴롭힘’ 유형을 제외한 세 가지 ① 의견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 ②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비하·모욕 ③ 폭력 선동을 적용해 언어를 분류했다. 이러한 표현 유형의 분류는 사실상 완벽하게 구분될 수 없으며, 어느 유형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표현의 유형화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표현을 이해하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표13] 발언 유형 분류 모니터링 지표

발언 유형		설명
언어	의견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	- 사실 적시, 학술 발표, 종교적 신념의 표명, 개인적 양심의 표출, 정책 제언 등으로 차별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것. - 멸시, 모욕, 위협보다는 표현의 수위가 훨씬 점잖고,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폭력이나 선동을 주장하지 않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비하·모욕	- 소수자(개인, 집단)에 대한 멸시, 모욕, 위협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 - 이 말을 듣는 순간 극도의 모욕감이나 멸시감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표현.
	폭력 선동	-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 제3자에게 차별을 ‘함께하자’고 ‘선동’하여 실제로 임박한 위협을 창출. - 극심한 폭력을 유발하거나 선동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염려되는 표현.
이미지		-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의견을 드러내는 이미지 - 특정 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전시한 이미지 -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는 이미지

모니터링 결과 의견 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이 비하, 모욕, 폭력 선동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의견 표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14] 표현 유형별 성차별 혐오표현 사례 수

표현유형		건수		
		게시글	댓글	총합
언어	의견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	140	91	231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비하·모욕	70	140	210
	폭력 선동	5	15	20
이미지		52	13	65
합계		267	259	526

의견 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은 멸시, 모욕, 위협보다는 표현의 수위가 훨씬 점잖고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폭력이나 선동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이 폭력 선동의 표현보다 덜 문제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의견 표명을 통해 만들어진 ‘편견’이 성차별적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논리가 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표현이 침해하는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이 폭력 선동에 비해 ‘덜’하다고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내 표현의 자유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에 의견 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이 무엇을 침해하는지, 실제의 해악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말의 수위나 표현 유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견 표명이 계속 누적될 경우 편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표15] 의견표명을 통한 편견 조장의 사례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뽀뿌	남자 끈대보다 여자 끈대가 더 지독하더라...	여자 끈대가 적을 뿐 지독한건 여자끈대가 지독해요 남자는 논리적으로 증거 드리밀면 말문이 막혀서 그냥 가는데 여자는 안그럼 소리만 질러댐
	일본여자 미국여자 그리고 한국여자	한국여자 : 남자의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함, 한국여자 : 의무는 개나 쥐버리고 안하면서 권리만 챙김
디시인사이드	페미,인권팔이,동성애, 불체자들이 불리해질 때마다 쓰는 이슈가 반일선동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나,동성애 귀어축제,페미니즘 정책들 계속 추진해놓고 비난 받으면서도 국뽕사상,민족감정 주입시켜서 선동해주기만 하면 그래도 '페미보다는 일본이 더 나쁘지'하면서 다시 페미 정치인들이 표를 받아가서 계속 재집권 하는거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페미와 여성부,인권팔이들이 항상 연명해오고 세를 불려온 게 다 그때문이지.
	드라마 봄밤 갈수록 말이 안되는 꼴페미 드라마되네..	오히려 페미니즘 너무 과대해져서 요즘은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편들 수도룩 하더구만 ㅅㅂ.

[표16] 폭력 선동의 사례		
출처	게시글 제목	게시물 또는 댓글의 주요 내용
일간베스트	친-무슬림 성향 한국인 (남성)유튜버 에 대한 몇가지 잠재적 위험성 - 이슬람에게는 기회를 주면 안된다.	어차피 씹보지 개보지 민국인데 이슬람들이라도 들어와야 김치 씹보지년들 처 죽이지
	페미니즘은 사실..	페미니즘 하는 계집년들 성폭행하고 산에 던져버려야 한다
	여자 씨발런들 패죽이고싶다	버닝썬 관련해서 약먹이고 섹스했다고 ㄹㄹ해대는거 듣기싫다얼마나 안대줘서 오죽했으면 약먹이고했겠냐 그니까 쉽게좀 대주지씨발런들 지들도 섹스 조아하고 섹스를 빌미로 남자한테 뜯어먹을꺼 다 뜯어먹으면서
에편코리아	대학가면 레즈 한명 정도는 있지않을까요?	레즈는 싹다 밟아 죽여야됨 살충제 뿌리고 ㅋㅋ카왁~튀앗!

03
나가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트래픽 순위 상위 8곳의 커뮤니티 내 200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살펴본 결과, 총 526건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성차별의 내용을 분류했을 때,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모욕이 196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과 비하가 176건(33.4%)으로 많았다.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모욕에서 발견된 사례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묘사해 여성을 ‘섹스 노리개’, ‘참젖’, ‘보지’ 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다양한 매체에서 여성의 사진 혹은 영상을 가져와 본래 맥락과 전혀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를 부각하며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 또한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게시물에는 19, 극후방, ㅇㅎ(극후방·약후방 주의란 말로, 야한 내용이 있으니 게시물 클릭 시 뒤를 조심하라는 뜻)라는 은어가 게시물 앞에 붙어있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일상적인 문화가 될 때, 성적 대상화는 쉽게 특정 개인을 향한 성적 모욕으로 이어진다. 특정 여성인물의 사진을 가져와, ‘(특정 여성을 상대로)입었던 팬티 가져가고 싶다’, ‘폭풍 섹스하고 싶다’, ‘몸의 특정 부위가)이쁘다’ 등의 성희롱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일상적인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성평등 주장에 대한 왜곡과 비하의 경우 ‘페미’ 자체에 대한 모욕, 성적 모욕, 비하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페미’는 이전의 대표적인 여성혐오 표현이었던 ‘김치녀’의 대체어처럼 여성을 비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김치녀는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김치를 선택하여 한국 여성의 특징을 이분화 하

커뮤니티 속 페미 관련 게시글

비율적으로

못생김 + 과체중 + 매력없음

3단 콧보로 남자는길 한번 못받고
학창시절 부터 사회나가서도 무언의
차별을 받아오니 사실은 본인 잘못이 큰걸 알지만
어떻게 할수 없으니 분노의 대상을 찾아 다니는것
같습니다.

살이꺼서 불편한게 아닌지 생각 해봐야

베트남 여성과 한국 여성을 비교한 게시글

• 베트남 전통복 아오자이(장삼)는 베트남 고등학교 교복이기도하다
흰색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사용한다

이러하다

참고로 베트남은 결혼 적령기가 20대 초반이고
애 낳아서 부모님 보여드리는걸 효도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서
20대 애엄마도 많다

20대 여자들이 결혼 준비가 이미 되어있고 페미사상도 없다
는게 큰 장점

와꾸는 보다시피...

베트남으로 가즈아~!!!

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치녀의 특성은 비만이고 못생겼고 (중략)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성의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할 뿐이지 능력이 없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민폐를 끼치며 이는 ‘한국 여성’의 특징으로 연결되었다.⁴ 김치녀 담론이 성별과 무관한 이유들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켰다는 점, 다른 나라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로 이어졌다는 지점은 이번 ‘페미’의 담론 구성과 동일하다. 2019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속 ‘페미’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거나 이론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장이나 외모를 가진 여성을 의미하는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페미’라는 표현의 의미와 내용은 과거 다수의 여성비하 표현들(꼴페미, 메갈, 김치녀)과 다르지 않다. 특히 성적 대상화에 근거해 ‘페미’와 동남아 여성들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은 ‘페미’에 대한 비하가 한국 여성 자체에 대한 비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페미니스트 비하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거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아닌,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커뮤니티가 접속 수 상위 커뮤니티이며 전체 공개 커뮤니티였다는 점은 중요하다. 접속수가 높은 커뮤니티에서 1,600건중 526건, 32.8%라는 높은 성차별 사례 숫자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일상적인 문화처럼 자리 잡힌 내용의 발견은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적 인식이 온라인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 및 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베를 기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에도, 김치녀에서 페미로 표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한국 여성을 향한 비하와 모욕이 이뤄지고 있었다.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적인 메시지를 접한 여성이 온라인 세계를 떠나게 되거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실생활에서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이수연 외, 2014)⁵는 사실과 온라인의 지속성, 확산성, 다양한 플랫폼, 익명성, 초국가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4 김수아·허다운,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년, p46
5 위의 논문, p52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황경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문 |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